

전도영

경력

여, 1997 (26세)

✉ tmd*****@naver.com

☎ 010-****-0541

☎ 010-****-0541

🏠 (42832) 대구 달서구 한실로



경력

총 4개월 (퇴사)
써브웨이대구월성점

학력

대학교(4년) 졸업
안동대학교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포트폴리오

<https://dobbang.com/>

나의 스킬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HTML5

CSS3

jQuery

JavaScript

경력

총 4개월

✓ 써브웨이대구월성점

2019.10 ~ 2020.01 · 4개월

학력

대학교(4년) 졸업

안동대학교(4년제)

국어국문학

복수전공 | 경영학

2016.03 ~ 2022.02 (졸업)

오상고등학교

문과계열

2013.02 ~ 2016.02 (졸업)

경험/활동/교육

그린컴퓨터아트학원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 대구에서 반응형 웹디자인 (UI/UX) 웹퍼블리셔 (디자인 & 코딩) 양성 과정을 760시간 수료하였습니다.

2022.02 ~ 2022.08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포트폴리오

🔗 <https://dobbang.com/>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성실한 사람은 과거에 했던 게 다 돌아와]

위 문장은 TV 프로그램 '지구 오락실'에서 미미가 스포츠 댄서 출신 개그우먼인 이은지에게 한 말입니다. 이은지는 댄스 스포츠 경험을 살려 라틴 댄서 '루나'라는 캐릭터로 개그우먼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연관 없다고 느껴지는 분야지만 결국 성실하게 보낸 과거의 경험이 모두 언젠가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국외 써브웨이, 편의점, 주얼리 판매, 파리바게뜨 등의 10가지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써브웨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워킹홀리데이로 떠난 아일랜드에서 써브웨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회사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며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 모이면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삶의 태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단순히 시급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후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늘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코딩 : 컴퓨터의 언어]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코딩과 국문학은 전혀 다른 분야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딩을 배울수록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리디자인하며 아코디언 메뉴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반스'라는 브랜드는 같은 디자인이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제품명을 클릭하면 아코디언 메뉴 안에 여러 색상의 상품이 슬라이드로 나타나게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수업 중 구현한 코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명을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화살표를 통해 이를 암시해 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용한 코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짜인 코드였기에 새롭게 코드를 짜야만 했습니다. 화살표 영역을 새로 추가하여 클릭 이벤트 안에 .next와 .siblings 메서드를 사용하여 toggle class에 따라 화살표가 움직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듯 코드들 같은 이유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재하던 코드들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일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점점 다양한 코드들을 공부하고 접하며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습득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저는 코딩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두 가지의 의사소통]

저는 의사소통에 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코딩이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이뤄지는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수업 과정 중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이미지를 html의 a 코드로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의 경우 기존의 창이 아닌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되어 사용자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자바스크립트의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여 모달 콘텐츠로 변경하여 구현하게 됐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짜인 코드는 제 입장에선 편하지만,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촘촘한 코드를 짤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일을 해나감으로써 이러한 기술들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다양한 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개인의 능력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다른 사람과의 업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스스로 해낼 수 없으며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구성원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구성원이 되어 두 가지의 모든 의사소통에 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